



3면

혁신당 도당, '돈공천 근절 4법' 촉구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음 11월 25일) 제3895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도, 익산시와 '미래성장동력' 가동

김관영 도지사 2026년 시·군 방문 - 익산시

바이오·환경·도시재생 등 현안 해결에 행정력 집중
익산 미래 먹거리 확보 등 성장관 키우기 전방위 협력
주민 체감 변화에 주력, 바이오메카 등 대형 사업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익산시와 협력해 바이오산업과 교통 인프라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낸다.

새해 14개 시군 방문 일환으로 익산을 찾은 김관영 도지사는 12일 익산 송리문화예술회관에서 '도민과 함께 하는 2026년 시군 방문 행사'를 개최하고 익산시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밝혔다.

바이오산업 육성부터 환경 복원, 도시재생, 광역 교통망 확충 등 익산의 체질을 바꿀 굵직한 사업들이 조망됐다.

익산시가 추진 중인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총 1,47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월성동과 마동 일원 25만6,050㎡ 부지에 연관산업 집적지와 연구 인프라를 구축한다.

1단계 효능·안전성 평가센터는 2024년 7월 준공됐고, 2단계 시제품 생산 시설은 지난해 9월 착공에 들어섰다. 3단계 임상시험센터도 지난해 12월 국비 확보에 성공해 올해 5월부터

설계 용역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동물헬스케어 바이오뱅크(4단계)와 동물헬스 벤처타운(5단계)이 2030년까지 순차 조성되면, 익산은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전국 1호 타이틀을 거머쥔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도 새 도약을 준비한다. 합영농공단지 내 239억원을 들여 건립한 이 캠퍼스는 지난해 12월 준공됐으며, 미생물·동물용의약품 등 그린바이오 분야 21개 기업이 올해 2월 입주

를 앞두고 있다. 도는 캠퍼스 운영 및 입주기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전북형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활성화 사

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우수기업 추가 유치해 그린바이오 생태계를 강화한다.

왕궁면 일원 자연환경복원사업도 전환점을 맞았다. 약 182만㎡ 규모에 2,437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생태통로 조성과 생태축 복원, 자연환경복원센터 유치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도와 익산시는 환경부 등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광역 교통망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도는 전주·완주·익산·군산·새만금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전주권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2,52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76km 구간에 광역전철을 신설해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호남권 철도 허브인 익산역의 환승 편의성을 개선하고, 복합환승센터 조성 등을 통해 광역 철도망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합영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힘을 보탠다. 총 219억5,000만원 규모로 순환경제활력센터와 청년그린창업플랫폼 등 거점시설 건립이 핵심이다. 지역 농가의 1차 생산물을 가공·판매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복합공간이 들어서면 쇠퇴한 구도심에 새 활력이 불어날 것인 전망이다. 도는 사업비 부족분 중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익산시의 현안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만호기자·익산=이재춘기자

"새만금특별자치체 설립 반대 주장은 사실무근"

민주 이원택 의원, 일부 공세에 정면 반박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일부에서 일파당 토하지 않는 악의적 공세와 관련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새만금 특별자치방자치단체 설립 반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민중 권익 문제와 특별자치단체연합은 별개의 사안이며 특히 새만금특별자치연합은 새만금 일대의 공익이 입과 발전을 위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주·완주 통합은 전북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로 보고 적극적인 입장을 제시했고 지난 2013년 통합을 직접 주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완주권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이 통합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21대와 22대 농수산위에서 활동하면서 6연속 우수감사의원으로 선정되는가 하면 나후 전북탈피를 주장해온 것은 물론 미래 먹거리 새만금 지역 재생에너지 비전을 내세워 외부 기업유치 인력 창출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펼쳐왔다는 긍정적 평가를 비롯한 도내 전반적인 중론이다.

따라서 이원택 의원은 12일 반박문을 통해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특별자치체는 반드시 제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최근 일각에서 전북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노력을 악의적인 왜곡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때부터 새

이 의원은 또 "전주·김제 통합에 대한 '신중론'은 혼선을 막기 위한 책임감 있는 정치적 판단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생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전주·완주 통합이 매듭이 안지어진 상황에서 또 다른 혼선을 부추길 수 있어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의 시·군 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인데도 사실을 왜곡해 정치적 비난의 도구로 삼는 행위는 전북의 통합과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근거 없는 비난 대신, 전북이 타 지역의 행정통합 물결 속에서 어떻게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할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12일 익산시청에서 열린 '도민과 함께하는 2026년 시군 방문'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정한을 익산시장 및 참석자들이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하계올림픽 유치 희망 K-문화의 수도 전북 전주에서'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익산시, "전라선 고속화 사업 역량 집중해달라" | 도지사 방문 맞아 지역 핵심 현안 건의

익산시는 12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시군 순회 방문에 맞춰 지역 핵심 현안을 직접 설명하고, 민생 현장을 함께 살피며 도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익산시청을 찾아 시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익산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송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익산시는 이날 △한반도 KTX 신설 관련 전라선 고속화 사업 역량 집중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지원 확대 △전주권 광역철도 구축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익산 건립 지원 등을 핵심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는 교통 접근성 개선과 원도심 회복, 산업재해 대응 기반 확충 등 익산

의 중장기 발전과 직결된 사안들이다.

특히 시는 전북 교통의 요충지이자 국가식품산업 중심지인 익산의 위상을 강조하며, 광역교통망 확충과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김 지사는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복지 현장을 살피고, 북부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만나 지역경제 상황을 점검했다. 익산시는 현장

방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복지와 민생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정한을 익산시장은 "익산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도에 전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며 "익산의 현안을 곧 전북의 과제라는 마음으로 도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도민 참여 이벤트

도,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운영...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
도청 홈페이지에 축하 게시판 개설, 메시지 첫 화면 노출

전북특별자치도는 출범 2주년을 맞아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 참여 축하·응원 메시지 이벤트'를 12일부터 2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2024년 1월 18일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2주년을 기념해, 도민과 함께 그 의미를 나누고 향후 도정에 대한 기대와 응원의 목소리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는 전북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전북특별자치도를 응원하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출범 2주년을 축하하거나 전북의 미래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홈페이지 내 '출범 2주년 축하 게시판'에 작성하면 된다.

작성된 메시지는 도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 순차적으로 노출될 예정이다. 비방·욕설·정치적 표현 등 부적절한 내용은 게시가 제한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해 도민 참여의 즐거움을 더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